

INTERIORS

空間設計

12. DEC 2019

since 1986

www.interiorskorea.com

39

THEME

Let's go party!

Nyx Rooftop Club

Moon Club

Convent Carmen

Jagger Club

2 Weeks

Night Flight

Alice & Fifth

LIGHT Night Club

EXHIBITION

CERSAIE 2019 : Let's open a new era!

Cheikh Ndiaye: Archives of the Sun

제이슨함은 2019년 12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셰이크 온디아예(Cheikh Ndiaye)의 개인전 'Cheikh Ndiaye: Archives of the Sun'을 개최한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10년 후,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는 근대화를 겪은 자국의 문화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평소 기록과 보존을 중시해 온 작가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세네갈에서의 경험을 작품 속에 투영해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문의 070-4477-7880 www.jasonhaam.com



이갑철 사진전: 적막강산-도시징후

MoPS 한미사진미술관 상형별관이 이갑철의 신작 '적막강산-도시징후'를 선보인다. 지난 30여년간 주관적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정체성을 다져 온 이갑철은 이번 전시를 통해 26점의 도시 사진들을 선보인다. 10여 년 동안 자연과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한 필름들을 인화한 작가는 고요한 적막과 고독과 적막을 사진 속에서 발견했다. 프레임을 벗어난 화면구성, 초점이 나간 피사체 등 작가 특유의 사진문법은 이번 도시작업에서도 돋보인다. 전시는 내년 1월 15일까지이다.

문의 (02)722-1315 www.photomuseum.or.kr



Greetings From A Far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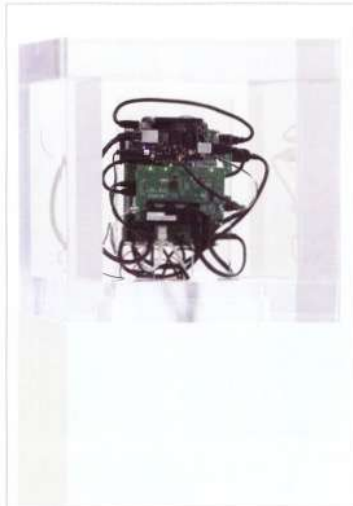
갤러리바톤은 1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조르제 오즈볼트(Djordje Ozbolt, 1967)의 개인전 'Greetings From A Far Way'를 개최한다. 그는 극렬한 사회적 충돌과 내전이라는 참화를 피해 떠나야 했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유년 생활과 영국에 정착한 후 근 30여 년간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서 작가로 활동하며 체득한 감정과 관점 등을 작품에 축적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재해석한 다양한 사건, 미디어에서 발췌한 이미지, 방대한 논픽션 서적 등에서 끌어온 콘텐츠들은 캔버스와 공간에 전혀 다른 느낌으로 풀어낸다.

문의 (02)597-5701 www.gallerybaton.com



기계비전 (Machine Visions)

백남준아트센터가 2020년 2월 2일까지 2018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인 트레버 페글렌(Travor Paglen)의 국내 첫 개인전 '기계비전 (Machine Visions)'을 개최한다. 예술가이자 동시에 지리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작업을 '디지털 세계의 숨겨진 풍경과 금지된 장소에 대한 지도'라 칭하며 보이지 않는 국가 권력의 감시체계와 물리적 장치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비디오와 사진, 설치 작품 19점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앞서 말한 트레버 페글렌의 문제의식과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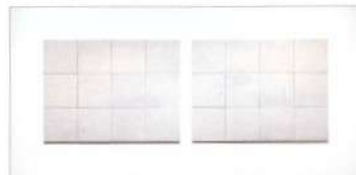
될 것이다.

문의 (031)201-8571 www.nipartcenter.kr

김희영 개인전: Cloud

피비갤러리는 2020년 1월 11일까지 김희영 작가의 개인전 'Cloud'를 개최한다. 평소 값싼 일회용품이나 비닐포장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들에 주목해 왔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경제적 효용성에만 집중하는 소비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좀 더 확장한다. 일상적 소모품과 일회용품의 형태를 반복해 만들어 낸 기하학적 패턴은 하늘과 구름이라는 자연풍경으로 치환되어 나타난다.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연민어린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작업은 소비문화에서 추출한 파편들을 재구성하며 '하늘'이라는 새로운 서사로 나아간다.

문의 (02)6263-2004 www.pibigallery.com



To the Moon with Snoopy

롯데뮤지엄은 반세기 전 달 착륙의 순간을 함께한 스누피를 매개로, 우주에 대한 특별한 전시를 개최한다. 인기 절정의 두 주인공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1919년 아폴로 10호의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콜사인이 되었고, 같은 해 출발한 아폴로 11호는 인간의 달 착륙을 실현했다. 본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19명의 한국 작가들이 제작한 100여 점의 신작이다. 재료와 장르의 구분을 넘어 새롭게 해석된 피너츠는 대중문화와 소통하며 영역을 확장 중인 한국 현대

